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통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음 11월 27일) 제36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131개 조문 75개 사업으로 확정... 53건 즉시 시행  
산업지도 혁신 지구·단지·특구 중 5개 지정 가시화  
특별법 보완·추가 특례 발굴 통해 전북발전 선도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본격 시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점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시작'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 131개 조문(333개 특례)의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 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1월, 131개 조문을 75개의 사업과 과제로 확정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했고,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치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해 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국무

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안)을 마련, 12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4일 공포됐다. 또한 시행령 외에 법률로 확보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 완료하였고, 13건은 2025년 이후 정비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 모든 특례는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시행 준비가 완료된 53건은 시행일에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22건은 2025년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는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고시되고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한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9개 지구, 2026년 이후 4개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전북의 핵심 산업 육성 기반이 차근차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적 지원' 18개 조문을 근거로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치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하며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2025년 1월) 예정임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333개 특례가 전북의 산업 발전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구·특구가 가동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 특례 등을 보장하고 특례 실행 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특례를 추가 발굴·반영함으로써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도민의 힘으로 전북발전 선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HD현대인프라코어 투자협약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대표, 신영대 국회의원, 신원식 군산부시장,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 등이 참석해 협약을 맺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HD현대인프라코어,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 증축

전북자치도·군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투자협약 체결  
지역인재 우선 채용·도내 협력업체 확대 등 경제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에 위치한 대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기존 사업장 내 약 1.188억원을 들여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을 증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6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종배 본부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대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87년에 설립된 글로벌 건설기계 및 엔진 제조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2027년까지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과 배터리 패키징 양산공장을 구축하여 국내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공장은 전차용 방산 엔진 연간 120대, 초대형 발전용 엔진 연간 1,250대와 전기버스 약 3,000대에 탑재할 수 있는 88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제품 양산은 공장 준공 이후, 이른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도내 협력업체 확대,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공장 증설은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은 "건설기계 대표주자인 HD현대인프라코어가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함에 감사드리다"며, "이번 투자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동반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 증설투자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다. 기업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대표는 "이번 투자로 군산 사업장은 엔진 사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공장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자치도, 빈집 유공  
공공분야 지자체 유일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공공분야'에서 빈집 정비와 지역활력 제고를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기관표창'은 빈집 정비와 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의 기여도를 평가해 행정부가 올해 처음 수여하는 포상으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통틀어 총 5점만 수상했다. 이 중 전북자치도가 유일한 지자체로 선정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자치도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유사 조례를 통합해 단일 조례로 운영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1976년부터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한, 2015년부터는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시범 추진한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2024년도 국비 18.28억원을 확보해 100동의 빈집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국비 14.2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220여 동의 빈집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우뚝'

최종 지정돼... 3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받아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비전 통해 사업 추진

전주시가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르면, 시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내 문화도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장관-문화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전주시를 포함한 13개 지자체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1년간 '가장 한국적인 미래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시범사업을 펼친 전주시는 이번 문화도시 본 지정을 통해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총 2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해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방치된 팔복동 옛 휴비스 여성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전통에 미래기술을 입히는 새로운 융합 콘텐츠 실험실인 '미래문화 생산기지'를 조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큰 자랑"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